https://doi.org/10.36034/yncdoi.2024..90.137

횡혈식석실로 본 순흥지역 신라 벽화고분의 성격

김 준 식*

Ⅰ. 머리말
Ⅱ. 순흥지역 고분문화의 전개와 횡혈식석실의 출현
1. 횡혈식석실 출현 이전의 순흥지역 고분문화
2. 횡혈식석실과 벽화고분의 출현
Ⅲ. 순흥지역 신라 벽화고분의 성격
1. 벽화고분의 축조연대
2. 벽화고분의 위계
Ⅳ. 맺음말

국문초록

영주 순흥지역은 5세기 중~후엽부터 신라 고분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이때 수혈식석곽이 출현한다. 5세기 후엽 이후로는 대형 횡구식석실을 견고하게 축조할 수준의 기술과 인력이 도입되고, 6세기 중엽까지 대규모 고분군을 조성하는 등 고분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를 중심으로 신라 중앙과 관계된 위세품이 다량 부장되는 것에서 당시 순흥지역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6세기 중엽 이후로는 고분의 밀집도가 낮아져 고분군의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이나 이는 당시 한반도 남부지역의 전반적인 고분 축조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세종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경북대학교 강사 / evpopular@nate.com

이때 순흥지역의 묘제는 횡혈식석실이 대표적이고, 역시 신라 고분문화 및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횡혈식석실이 유행한 6세기 이후의 고대 사회는 국가정비 및 지배체제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묘제의 위계화도 가능한 시기에 해당한다. 이에 순흥지역 횡혈식석실은 신라 고분 편년 및 6세기 중엽 이후 신라 횡혈식석실 위계에 따라 2등급과 3등급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등급이 가장 높은 어숙묘를 기준으로 피장자의 신분과 위계를 추정하였다.

순흥지역에서 확인된 두 기의 벽화고분 역시 신라 횡혈식석실 체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신라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편년에 근거하여 모두 6세기 후엽에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역사고고학의 관점으로 순흥지역 벽화고분의 축조연대 및 위계에 대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접근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주제어**

순흥지역, 벽화고분, 신라, 횡혈식석실, 고분군, 위계

Ⅰ. 머리말

영주시 순흥면 일원에는 5~6세기 삼국시대 고분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특히, 순흥 어숙묘(사적)와 순흥 벽화고분(사적)은 벽화와 함께 고분의 축조연대, 그리고 피장자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명문까지 확인되어 발견 당시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1] 발굴조사 당시 벽화고분은 벽화의 주제와 양식에 근거하여 고구려와 관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10년대 이후 순흥지역에서 다수의 고분이 조사되면서 5세기 전~중엽 이래 순흥지역 고분의 전반적인 성격은 신라와 관계되었음이 밝혀졌다.[2] 특히, 태장리 및 읍내리고분군에서 대형 횡구식석실과 함께 금동관편을 비롯한 각종 신라 장신구 등이 대거 출토되면서 5세기 후엽~6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순흥지역과 신라 중앙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3]

지리적으로 순흥지역은 단양·충주지역 등 남한강 방면으로 연결된 죽령과 인접하기 때문에 영남지방에서 호서지방을 거쳐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축조되면서 대규모 고분군까지 출현하는 현상 또한 이러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고,[4] 최근 이루어진 정밀지표 및 분포조사 결과까지 더하면 순흥지역의 고분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1)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榮州順興壁畵古墳發掘調査報告』, 1984; 大邱大學校博物館,『順興邑內里壁畵古墳』, 1995.
2) 김도헌,「영주 순흥 지역 고분의 성격과 특징」,『영주 순흥지역 고분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 영주 순흥지역 고분 국제학술대회, 영주시·세종문화재연구원, 2012; 남익희,「순흥지역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묘의 전개와 정치체 동향」,『嶺南考古學』65, 영남고고학회, 2013; 김준식·이진혁,「순흥지역 횡구식석실과 그 축조 집단의 성격」,『야외고고학』19,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4; 李辰赫,「5~6세기 소백산맥 동북부 일대 신라고분 연구(횡구·횡혈식묘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3) 세종문화재연구원,『榮州 順興 台庄里古墳群3』, 2013.
4) 동양대학교박물관,『영주시 관내 선사~고려시대 고분군 정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9.

크다.[5] 따라서 5세기 후엽~6세기 중엽 순흥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은 신라의 영역 확장 및 한강 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신라 중앙에서 순흥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순흥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신라양식이 분명히 확인되는 5세기 전~중엽부터는 신라 고분문화의 영향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여전히 벽화고분에 대해서는 축조연대를 비롯해 피장자의 출신과 위계에 관한 논란이 남아 있다. 즉, 고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명문이 확인되었음에도 매장시설의 계통과 피장자의 출신은 물론, 순흥 어숙묘의 乙卯年과 순흥 벽화고분의 己未年은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컨대, 두 벽화고분의 연대를 둘러싼 학계의 여러 견해를 수용하면 순흥 어숙묘는 475~595년, 순흥 벽화고분은 419~599년으로 편년되어 그 편차가 최대 180년까지 벌어지는 현상까지 관찰된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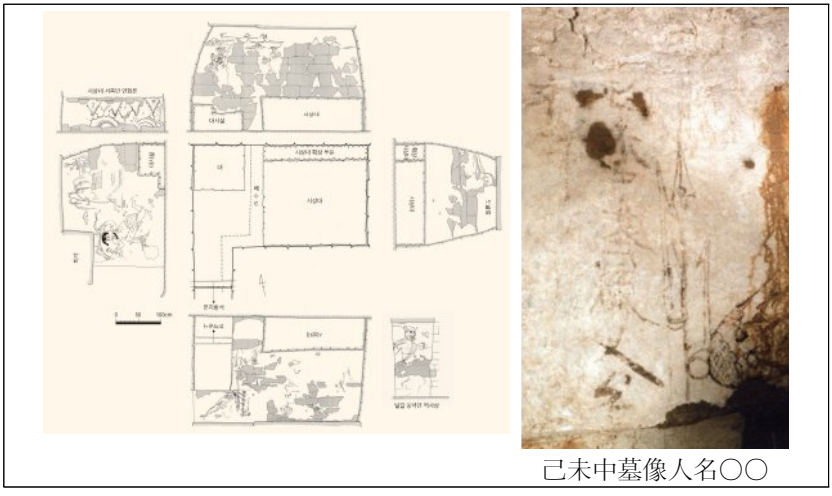
대개 고고학 연구에서 명문의 존재는 해당 유구·유물의 성격과 연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에 역사 편년 자료로서 가치가 상당하지만, 그 발견 사례가 거의 없어 실제 연구 자료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7] 또한, 순흥 어숙묘와 같이 피장자의 이름과 관직이 모두 명시되었더라도 공주 무령왕릉 사례처럼 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역사 기록 등의 비교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역사 편년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즉, 명문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고분의 축조연대와 위계, 피장자의 출신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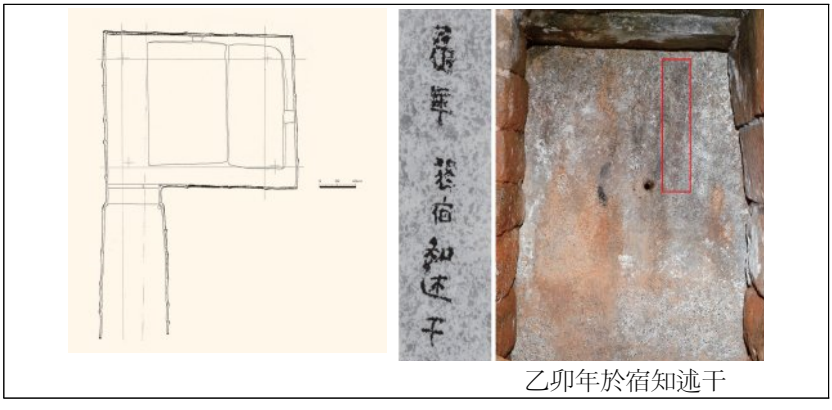
5) 세종문화재연구원, 『榮州 邑內里古墳群1』, 2017; 홍익문화재연구원,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주변 정밀지표조사 및 학술연구 보고서』, 2018; 서라벌문화재연구원・영주시, 『영주 순흥 벽화 고분 종합정비계획』, 2023.

6) 이태호, 「고구려의 고분인가? 신라의 고분인가?」, 『남한의 고분벽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232~239쪽.

7) 공주 무령왕릉 지석,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 경주 호우총 청동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림 1> 순흥 벽화고분 석실 및 墨書銘(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그림 2> 순흥 어숙묘 석실 및 朱漆刻字銘(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현재 신라 고분 편년의 확립과 함께 순흥지역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가 축적되면서 두 벽화고분의 연대는 순흥 벽화고분의 경우 539년 또는 599년, 순흥 어숙묘의 경우 535년 또는 595년으로 그 편차가 많이 줄

어들었으나, 아직도 60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사고고학과 달리 역사고고학의 편년은 100년을 3~4단계로 구분하여 해당 자료의 시간 축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60년의 차이는 역사고고학 편년 체계에서 2단계를 뛰어넘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해당한다. 예컨대, 순흥 벽화고분의 535년과 595년의 차이는 단순히 60년이라는 축조연대 차이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6세기 전반과 후반 사이에 발생한 신라의 역사적 사건, 정치・제도・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고분문화 및 장송의례의 변화까지 포함할 수 있다.[8)]

한편, 공주 송산리 6호분, 부여 능산리 동하총,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등 백제와 대가야의 벽화고분은 내부에서 명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비교적 고분의 편년과 성격 등은 안정적인 편이다(표 1). 공주 송산리 6호분은 무령왕릉과 같은 전축묘로 축조되었고, 구체적인 양식은 당시 중국 남조 양나라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부여 능산리 동하총은 소위 사비기 능산리형 횡혈식석실에 해당하고, 고분군 내 축조 순서에 따라 6세기 후엽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은 웅진~사비기 백제 터널형 횡혈식석실의 영향을 받아 축조된 것으로 6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이들 벽화고분의 연대는 역연대 자료가 포함된 무령왕릉을 주축으로 묘제 형식과 출토유물의 고고학적 편년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공주 송산리 6호분, 부여 능산리 동하총,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모두 벽화가 확인되었음에도 고분의 편년과 성격 등은 묘제 형식을 중심으로 판단한 점이다. 즉, 벽화의 존재는 해당 고분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으나, 고분의 편년과 해석의 근거는 당시 해당 지역 또는 정치적 중심지에서 유행한 묘제 형식을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비교하였다. 그러나 순흥지역 벽화고분은 지금까지 벽화의 주제

8) 535년과 595년 사이에는 관산성 전투(554), 대가야 복속(562) 등 신라와 관계된 역사적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신라 지배층의 묘제가 6세기 전반을 거치며 적석목곽묘에서 횡혈식석실로 변화가 감지되고, 6세기 중반 이후로는 완전한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의 큰 변화가 관찰된다. 따라서 60년이라는 시간 차이는 역사고고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반영하게 되므로 고분의 해석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와 양식 등 회화적 요소에 집중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9] 앞서 살펴본 백제와 대가야의 벽화고분과 달리 고분 자체의 고고학적 분석과 해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2000년대 초반 묘제 형식을 중심으로 순흥지역 벽화고분을 연구한 사례가 있었으나,[10]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순흥지역 고분 발굴성과가 부족한 형편이었고, 이에 따라 묘제 형식을 비교할 수 있는 주변 고분 자료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5~6세기 순흥지역 묘제의 변천을 분석하면서 벽화고분을 포함한 횡혈식석실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관련 연구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간단한 논의만 이루어졌다.[11]

<표 1> 한반도 남부지역 삼국시대 벽화고분

고분	묘제	벽화문양	비고
영주 순흥 벽화고분	횡혈식석실	현실(벽면): 서조도, 산악도, 가옥도, 여인상, 역사상, 어형기, 산, 구름, 새, 꽃, 연못 현실(시상대): 연화문 / 연도(벽면): 역사상	신라? 고구려?
영주 순흥 어숙묘	횡혈식석실	연도(천장): 연화문 / 문비석: 인물도	신라? 고구려?
공주 송산리 6호분	전축묘	현실(벽면): 사신도	백제(웅진)
부여 능산리 동하총	횡혈식석실	현실(벽면): 사신도 / 연도(천장): 연화문	백제(사비)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횡혈식석실	현실(천장): 연화문 / 연도(천장): 연화문	대가야

9) 이태호, 앞의 논문(2019); 전호태, 「영주 신라 벽화고분 연구」, 『先史와 古代』 64, 한국고대학회, 2020; 전호태, 「영주 순흥 신라 벽화고분의 가치와 의의」, 『한국문화연구』 4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10) 姜賢淑, 「高句麗 壁畵墳과 新羅 榮州地域 壁畵墳 比較 考察」, 『白山學報』 67, 白山學會, 2000; 홍보식, 『新羅 後期 古墳文化 硏究』, 춘추각, 2002.

11) 김준식, 「영주 순흥지역 고분 문화의 성격과 특징」, 『영주 순흥 벽화고분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 2021 영주 순흥 벽화 고분 학술회의, 2021.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 순흥지역 고분 발굴 자료가 다수 확보되면서 묘제 형식 등 벽화고분의 고고학적 분석이 가능함에 주목하고, 순흥지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5~6세기 신라 고분을 기반으로 벽화고분의 묘제 형식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순흥지역 벽화고분의 묘제 형식은 6세기 신라 횡혈식석실의 범주 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벽화고분의 축조연대를 비롯하여 피장자의 출신과 위계 등은 벽화의 회화적 요소의 분석에서 벗어나 역사고고학의 관점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Ⅱ. 순흥지역 고분문화의 전개와 횡혈식석실의 출현

1. 횡혈식석실 출현 이전의 순흥지역 고분문화

1) 수혈식석곽

순흥지역에서는 5세기 이전의 분묘유적이 확인된 바가 없어 현재로서는 고분의 출현 시점을 5세기 이후로 보고 있다.[12] 순흥지역에 고분이 출현할 당시의 묘제는 수혈식석곽과 횡구식석실로 확인되는데, 주지하듯이 수혈식석곽은 지하식으로 축조되었고, 완전 밀폐의 매장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가장이 어려운 구조이다. 반면, 횡구식석실은 지상식 또는 반지상식으로 확인되고, 二次葬의 매장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추가장이 가능한 구조이다.

여기서 수혈식석곽과 횡구식석실은 5~6세기 영남지방의 보편적인 매장시설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수혈식이 횡구식보다 축조 및 매장방식이 간단하여 선행 묘제로 알려져 있다. 실제 순흥지역에서도 횡구식석실보다 수혈식석곽이 선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안정면 용산리 산41번지 유적[13]에서 5세기 중엽 전후로 편년되는 횡구식석실이 조사되었기

12) 삼국시대 이전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분묘유적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영주시 전체로 확대하면 수혈식석곽과 횡구식석실이 거의 동시에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태장리고분군2 3호분	태장리고분군2 5호분	청구리고분군1 1호 석곽

<그림 3> 영주 순흥지역 수혈식석곽 조사 사례

약 700기의 삼국시대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순흥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총 3기의 수혈식석곽이 조사되었다(그림 3). 여기서 청구리고분군1 1호 석곽은 훼손 정도가 심하여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이를 포함하더라도 그동안 순흥지역에서 40여 기의 고분이 조사되었음을 고려하면 수혈식석곽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14]

순흥지역 수혈식석곽의 축조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토유물 중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토기의 편년을 참고할 수 있다. 예컨대, 태장리고분군2 5호분에서 출토된 고배는 전형적인 신라양식 이단투창고배에 해당하고, 截頭圓錐形으로 분류된다(그림 4). 이러한 형태는 최근 신라양식토기 분류에 따라 황남대총 남분 단계 직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태장리고분군2 5호분의 축조연대는 대략 5세기 중~후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안동 성곡동 1-1호 석실, 상주 신상리 19호 석곽, 경주 월성로 나-9호분 등에서 확인되어 경주를 포함한 당시 신라권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15] 한편, 앞에서 언급한

13) 동양대학교박물관, 『영주 용산리 산41 유적』, 2018.
14) 김도헌, 「영주지역 삼국시대 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영주 순흥 벽화고분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 2021 영주 순흥 벽화고분 학술회의, 2021.
15) 南翼熙, 『新羅土器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31~139쪽.

안정면 용산리 산41번지 유적 5호 석실에서 출토된 토기류도 모두 신라양식으로 파악되는데, 고배의 경우 대각 하단부의 형태를 고려하면 형식학적으로 태장리고분군2 5호분 출토품보다 선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장 시점은 5세기 중엽 또는 그보다 빠를 가능성도 있다(그림 4).

태장리고분군2 5호분	용산리 산41번지 5호 석실

<그림 4> 영주시 관내 5세기 전~중엽 신라양식토기 비교

이처럼 순흥지역에서 수혈식석곽 또는 횡구식석실과 함께 고분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만으로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지금으로서는 출토유물로 보아 그 출현배경에 신라의 영향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5세기 중엽 낙동강 상류권역에 신라 고분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양상과 유사한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다만, 신라양식 이단투창고배가 출토된 태장리고분군2 5호분의 경우 수혈식석곽의 벽석 치석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축조 수준도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 공인이 참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즉, 수혈식석곽의 출현과 함께 내부에서 신라양식 고배가 부장되었지만, 고분 축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까지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으나 순흥지역 횡구식석실의 경우 고분 축조와 관련된 고도의 기술력이 관찰되고, 아울러 추가장을 포함한 상장의례와 관련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대규모 고

분군까지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횡구식석실

橫穴系 묘제인 횡구식석실은 추가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수혈계 묘제와 매장 프로세스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다. 또한, 횡혈식석실과 동일한 매장 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인 羨道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즉, 횡구식석실은 별도의 통로 없이 석실 한쪽 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구로 사용하여 횡방향의 매장을 가능하게 한 구조이다. 영남지방에서는 선행 묘제인 수혈식석곽의 영향에 따라 장방형~세장방형 평면형태가 상당수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순흥지역에서 조사된 40여 기의 고분 내 매장시설을 살펴보면 횡구식석실로 확인된 사례가 27기로 나타나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표 2). 또한, 현재 조사 완료된 고분을 포함하여 읍내리, 태장리, 청구리, 내죽리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횡구식석실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표에서 다수 확인되기 때문에 순흥지역 고분의 매장시설은 대부분 횡구식석실일 가능성이 크다.

순흥지역 횡구식석실의 가장 큰 특징은 평면 장단비 2.5:1 이상의 세장방형 평면형태로 설계되었고,[16] 벽면과 천장은 할석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견고하게 축조하였다는 점이다. 세장방형 평면형태는 영남지방의 대형 수혈식석곽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횡구식석실에 반영된 세장방형 평면형태 역시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고,[17] 여기에 횡혈계 묘제의 개념과 장송의례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횡구식석실을 수혈식석곽 구조에 횡혈계 매장방식을 응용한 영남지방의 독특한 묘제로 보는 견해도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였다.[18] 따라서 발전 단계상 세장방형 횡구식

16) 횡혈계 묘제 연구에서는 평면 장단비 2.5:1 이상을 세장방형으로 보고 있다(金俊植, 『加耶 橫穴式石室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30쪽).

17) 영남지방에서는 피장자 신장을 훨씬 능가하는 길이 3m 이상의 세장한 수혈식석곽이 다수 확인된다. 발굴조사 결과 순흥지역 횡구식석실은 거의 대부분 길이 4m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석실의 출현은 그 이전에 대형 세장방형 수혈식석곽을 축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수혈식석곽과 횡구식석실은 수혈계와 횡혈계라는 축조 프로세스의 차이는 있으나 평면 형태 등 기본 구조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표 2> 영주 순흥지역 횡구식석실 조사현황

고분	조사내용	조사기관(보고서 발간년도)
읍내리고분군1	횡구식석실 5기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1994) 세종문화재연구원(2017)
태장리고분군2	횡구식석실 4기	세종문화재연구원(2014)
태장리고분군3	횡구식석실 4기	세종문화재연구원(2013)
태장리고분군4	횡구식석실 2기	세종문화재연구원(2013)
태장리고분군9	횡구식석실 7기	동양대학교박물관(2017)
청구리고분군1	횡구식석실 5기	동국문화재연구원(2018)

그러나 주지하듯이 순흥지역에서는 횡구식석실로 직접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축조된 수혈식석곽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분 축조 기술 또한 온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5세기 후엽~말에 축조된 대형 횡구식석실인 태장리고분군3 1호분이나 읍내리고분군1 파괴분과 같이 대형 횡구식석실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축조 기술,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나,[19] 지금으로서는 순흥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기술과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8) 홍보식, 앞의 책(2002), 163쪽.
19) 태장리고분군3 1호분 석실 평면규모: 861×240㎝, 읍내리고분군1 파괴분 석실 평면규모: 700×275㎝.

태장리고분군3 1호분

태장리고분군9 6호분

<그림 5> 영주 순흥지역 횡구식석실 조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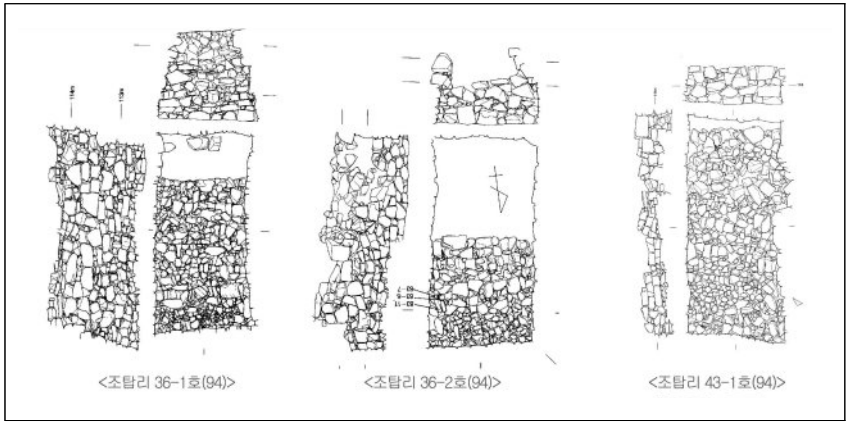
따라서 순흥지역은 수혈식석곽에서 횡구식석실로 계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의 횡구식석실 단계에서부터 고분 축조와 관련된 기술력이 급격히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볼 수 없었던 수 백기의 고분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분군이 조성 및 확산하는 현상도 횡구식석실의 수용을 계기로 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순흥지역에서는 횡구식석실의 출현과 함께 고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고분의 양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고분군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순흥지역 횡구식석실의 구조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설계는 낙동강 상류권역의 양상과 유사하다. 그 시기와 범위를 살펴보면 5세기 후엽~6세기 접엽의 상주지역(병풍산지역, 병성천유역, 이안천유역) 또는 안동지역(미천유역)과 유사한데, 당시 세장방형 횡구식석실이 낙동강 상류권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것은 이 일대의 보편적인 묘제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20] 아울러 6세기 후엽을 지나면서 평면형태가 점차 세장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하는 양상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5세기 후엽~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주와 안동지역 등을 경유하여 낙동강 상류권역 전반에 걸쳐 신라양식 토기가

20) 李在煥, 「洛東江 上流地域 橫口式石室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0쪽.

확산하는 현상도 주목된다.[21] 이는 소백산맥 건너편의 5세기 중엽 충주 두정리고분군의 성격이 고구려계로 보는 견해와 대비된다.[22]

사실 6세기 전엽은 순흥지역에서 횡구식석실이 가장 활발하게 축조되는 시기로, 대부분 이 시기에 해당한다. 특히, 6세기 전엽 순흥지역은 고분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석실 내부에서 추가장이 이루어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추가장을 고려하면 1기에 최소 2인 이상의 피장자를 상정할 수 있고, 태장리고분군3 1호분과 같이 10여 차례 시상이 구획된 사례도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 피장자 수는 고분 수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고분의 양적 성장과 함께 순흥지역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6> 6세기 전엽 안동 미천유역 조탑리고분군 횡구식석실
(李辰赫 2016, 수정 후 인용)

순흥지역 횡구식석실의 계통에 관해서는 안동 미천유역의 조탑리고분군이나 상주 낙동강유역의 병풍산고분군과 비교한 견해가 주목된다.[23]

21) 南翼熙, 앞의 논문(2019), 135~144쪽.
22) 崔鍾澤, 「南韓地域 高句麗古墳의 構造特徵과 歷史的 意味」, 『한국고고학보』 81, 한국고고학회, 2011, 141쪽.

여기서는 비슷한 시기의 조탑리고분군 횡구식석실 역시 대형의 세장방형 평면형태로 설계되었고, 피장자의 배치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주축직교장의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장 시 선행 시상 측면에 비슷한 크기의 시상을 덧붙여 상면을 뚜렷하게 구획하는 점에 착안하였다(그림 6).

그리고 상주 병풍산고분군 역시 세장방형 평면형태를 비롯해 기본 구조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특히,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의 성격이 경주나 의성지역과 관계되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병풍산고분군에서 출토된 신라양식토기는 비슷한 시기의 상주를 대표하는 병성천유역의 청리고분군, 이안천유역의 신흥리고분군과 달리 토기 제작에 현지 요소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주나 의성지역에서 제작된 토기가 직접 이입되었을 것으로 본다.[24]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순흥지역 횡구식석실 내부에서 출토된 신라양식토기의 경우에도 형태적으로 현지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고, 상주 병풍산고분군의 사례와 같이 대부분 경주 또는 의성지역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다.

2. 횡혈식석실과 벽화고분의 출현

횡혈식석실은 기본적으로 피장자가 안치되는 현실, 그리고 현실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인 연도로 구성되어 있다. 횡혈식석실은 거대고분을 축조한 고대 국가의 지배층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묘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횡혈식석실은 각각의 개성에 따라 독자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정형화된다. 나아가 국가 체제 및 관등제와 연계하면 횡혈식석실의 위계 및 피장자의 신분 추정까지도 가능하다. 예컨대, 백제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경우 정형화된 묘제를 통해 위계의 표현은 물론, 법제의 통제 및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이 고고학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25]

23) 김준식・이진혁, 앞의 논문(2014); 李辰赫, 앞의 논문(2016).
24) 李盛周,「技術, 埋葬儀禮, 그리고 土器樣式-尙州地域 洛東江以東 土器樣式의 成立에 대한 理解-」,『한국고고학보』52, 한국고고학회, 2004, 124쪽.

<표 3> 영주 순흥지역 횡혈식석실 조사현황

고분	잔존규모 (길이×너비, ㎝)	평면구조[26]		연도위치
		평면비율 (평면형태)	평면규모 (㎡)	
순흥 어숙묘	310 × 250	1.24:1(방형)	7.75	좌편재
순흥 벽화고분	353 × 202	1:1.75(횡장방형)	7.13	좌편재
읍내리고분군1 3호분	280 × 230	1.22:1(방형)	6.44	우편재
읍내리고분군1 11호분	214 × 180	1.19:1(방형)	3.85	좌편재
청구리고분군1 1호분	250 × 185	1:1.35(횡장방형)	4.63	좌편재
청구리고분군1 2호분	230 × 160	1:1.44(횡장방형)	3.68	좌편재
청구리고분군1 4호분	240 × 154	1:1.56(횡장방형)	3.70	좌편재
청구리고분군1 5호분	242 × 180	1:1.34(횡장방형)	4.36	우편재
내죽리고분군3 바느레고분	274 × 242	1.13:1(방형)	6.63	좌편재

현재까지 순흥지역에서 조사된 횡혈식석실 중에서 평면형태가 정확하게 파악되며, 연도의 위치까지 확인된 경우는 순흥 어숙묘, 순흥 벽화고분, 읍내리고분군1(3호분, 11호분), 청구리고분군1(1호분, 2호분, 4호분, 5호분), 내죽리고분군3 바느레고분 등 총 9기로 확인된다(표 3). 공교롭게도 이 9기의 횡혈식석실은 방형~횡장방형 평면형태의 좌·우편재 연도, 그리고 평천장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6~7세기 신라 횡혈식석실의 보편적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표 4, 그림 7).

25) 山本孝文,『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문화사, 2006.

26) 평면비율은 평면 길이:너비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며, 길이가 더 긴 경우는 종장방형, 반대로 너비가 더 긴 경우는 횡장방형에 해당한다. 이에 현실의 평면형태는 평면비율 1.25:1(길이:너비)을 기준으로 방형과 종장방형을 구분하고, 반대로 횡장방형은 1:1.25(길이:너비)를 기준으로 방형과 구분한다(황종현,『신라 횡혈식석실묘의 수용과 전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7쪽).

신라 횡혈식석실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려하면 순흥지역의 경우 위계와 관계된 핵심 속성인 현실의 평면규모는 대개 4㎡ 전후로 확인되어 중형급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6㎡ 이상의 대형급은 벽화고분 2기, 읍내리고분군1 3호분, 내죽리고분군3 바느레고분 등이 해당하며, 여기서 벽화고분 2기는 6.76㎡ 이상의 초대형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27] 그리고 네 벽이 최하단부에서 일정 높이까지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축조되다가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안쪽으로 좁혀지는 穹窿形平天障[28] 구조 역시 당시 경주를 포함한 신라 방형~횡장방형 횡혈식석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고, 바닥에 마련된 시상은 높이 30㎝ 이상의 고시상으로 확인된다. 신라 왕경인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서 이러한 구조의 횡혈식석실은 6세기 중엽부터 8세기대까지 계속해서 축조되고 있으나,[29] 그 빈도수를 살펴보면 6세기 후엽~7세기 전엽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30]

횡혈식석실의 출현 이후 순흥지역에서는 고분의 밀집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횡구식석실 단계에서 보여준 대규모 고분군의 조성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6세기 이후 율령반포, 불교공인, 관등제, 중앙-지방지배체제 확립 등을 배경으로 거대 고분 및 대규모 고분군을 축조하는 문화가 점차 소멸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당시 한반도 남부지역의 전반적인 고분 축조 양상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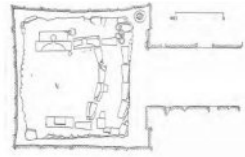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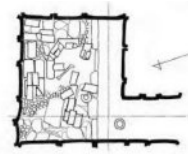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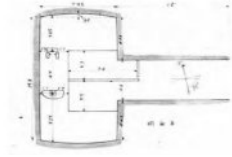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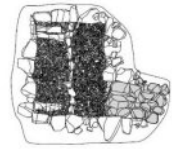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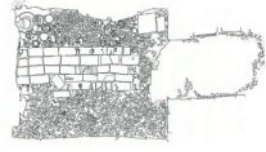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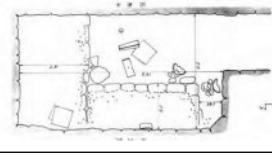
27) 대개 영남지방 횡혈식석실 연구에서 현실의 평면규모는 4㎡ 미만을 소형, 4~6㎡를 중형, 6㎡ 이상을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6.76㎡ 이상은 초대형으로 구분하여 가장 위계가 높은 것으로 본다(최병현, 「경주지역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계층성과 고분 구조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83, 한국고고학회, 2012, 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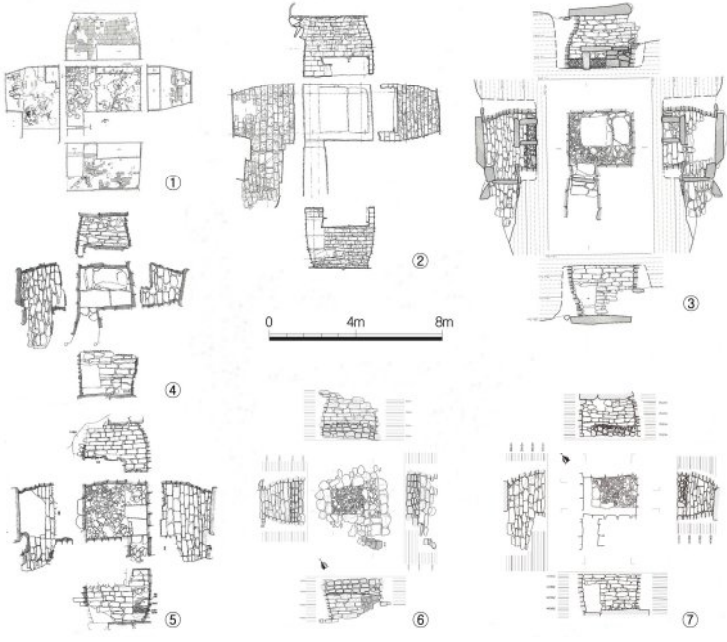
28) 개석 1매를 사용하는 궁륭형 천장 구조와 달리 수매의 개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의 평면형태와 벽체의 축조 방식이 전형적인 궁륭형과는 다르다. 따라서 궁륭형임에도 평천장 구조와 유사하다 하여 사용된 개념이다(金俊植, 앞의 논문(2019), 34쪽).

29) 일반적으로 신라 왕경 즉, 경주시내와 주변부에서 횡혈식석실이 출현하는 시점은 6세기 중엽 이후로 알려져 있으나, 후술할 경주 내남면 일원(월산리, 용장리)의 횡혈식석실 사례를 보면 6세기 전엽의 가능성도 보인다.

30) 최병현, 앞의 논문(2012), 89쪽.

<표 4> 신라 횡혈식석실 형식분류(황종현 2020, 수정 후 인용)

현실 평면형태	연도위치	형식	고분	
방형	중앙	Ⅰa		서악동 석실분
	좌편재, 우편재	Ⅰb		충효동 2호분
횡장방형	중앙	Ⅱa		서악동 석침총
	좌편재, 우편재	Ⅱb		동천동 354 8호분
종장방형	중앙	Ⅲa		용강동 1구간 6호분 (근화여중고)
	좌편재, 우편재	Ⅲb		동천동 와총



①순흥 벽화고분(사적), ②순흥 어숙묘(사적), ③내죽리고분군3 바느레고분,
④읍내리고분군1 11호분, ⑤읍내리고분군1 3호분, ⑥청구리고분군1 5호분,
⑦청구리고분군1 1호분

<그림 7> 순흥지역 횡혈식석실 비교(김준식 2021)

Ⅲ. 순흥지역 신라 벽화고분의 성격

1. 벽화고분의 축조연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흥지역의 고분문화는 5세기 후엽을 거치며 신라 고분 일색으로 발전하며, 횡구식석실을 중심으로 대규모 고분군

을 조성하였다. 이에 당시 순흥지역은 신라 고분문화, 나아가 중앙과 지방지배체제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횡혈식석실 또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순흥 어숙묘에서 확인된 述干의 존재는 바로 이러한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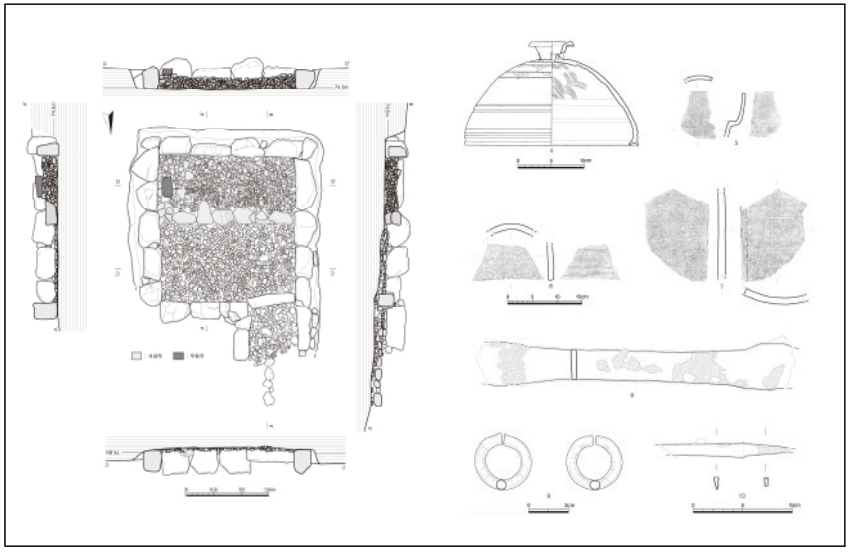
지금까지 순흥지역의 벽화고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발견 초기부터 석실 내부의 고구려계 벽화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고분에 대한 고고학적 편년보다 벽화라는 회화적 요소에 주목하여 계보와 축조연대를 추정하였다. 물론, 삼국시대 고분문화에서 벽화라는 요소도 중요한 속성으로 볼 수 있으나, 그보다 먼저 고분을 구성하는 핵심 시설이자 피장자의 안치 공간인 묘제 즉,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순흥 벽화고분을 6세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평가하려면, 당시 한반도 남부지역에 축조된 고구려계 횡혈식석실 중에서 좌편재 연도의 횡장방형 평면형태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이러한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횡장방형 평면형태는 그 대상을 평양과 집안지역 등 당시 고구려 중심부로 확대하여도 매우 드물게 확인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순흥지역과 달리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횡장방형 구조로 축조되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의 유행 시기도 6세기 중엽 이후로 보고 있다.[31] 결국, 순흥지역의 벽화고분 2기는 6세기 중엽 이후의 신라 횡혈식석실 체계 속에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려면 신라 왕경인 경주지역 횡혈식석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주시내에서 조사된 가장 이른 시기의 횡혈식석실은 보문동 합장분으로 알려져 있다. 종장방형 평면형태인 보문동 합장분 횡혈식석실의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최근 신라 횡혈식석실 편년에 따르면 6세기 2/4분기 늦은 시기로 보고 있는데,[32] 선축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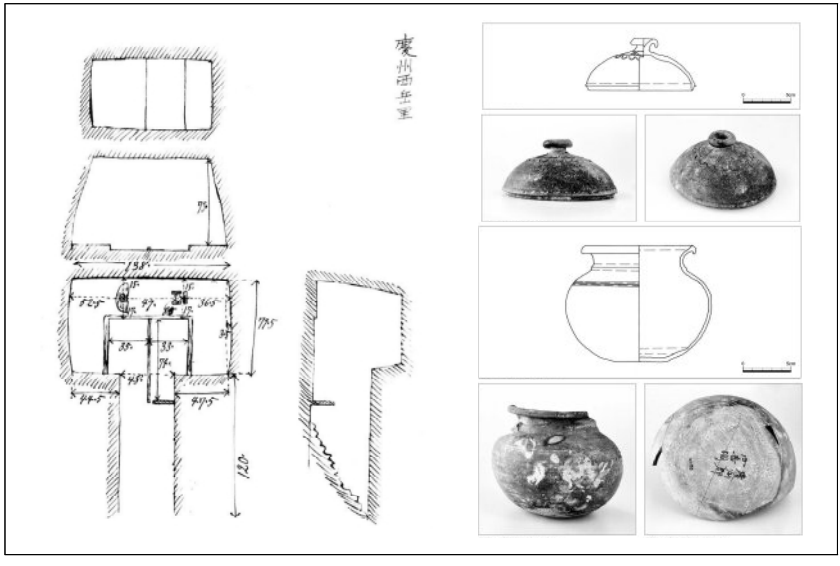
31) 韓眞賢,「黃海道・南韓地域 高句麗 石室墓 硏究」,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103~106쪽.
32) 김준식, 앞의 논문(2019); 황종현, 앞의 논문(2020).

적석목곽의 하한을 고려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주시내에서 횡혈식석실이 출현한 시점은 넓게 보아 6세기 중엽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보다 이른 시기에 경주를 벗어난 신라권역 내에서 축조된 횡혈식석실 역시 종장방형~세장방형 평면형태라는 점이다.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는 경산 임당5A호분, 포항 냉수리고분, 포항 오도리1호분 등은 종장방형~세장방형 평면형태와 좌·우편재 연도를 특징으로 하는 구조이다. 역시 6세기 전엽 횡혈식석실인 의성 학미리1호분과 안동 조탑동94-4호분 등도 종장방형~세장방형 평면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5세기 후엽부터 신라권역 내 횡혈식석실의 평면형태는 종장방형~세장방형 평면형태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경주를 포함한 신라권역에서 5세기 후엽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횡혈식석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8> 경주 용장리 567-16번지 유적 석실 및 출토유물
(세종문화재연구원 2015)

여기서 현재 순흥지역 횡혈식석실의 평면형태는 방형~횡장방형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방형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연도의 위치에 의해 정방형이 아닌 횡방형에 가깝다. 또한, 경주 월산리 B9호분이나 용장리 1호분 등 경주시내 외곽의 내남면 일대에서 6세기 중엽 이전으로 보이는 횡혈식석실이 조사되었으나,[33] 역시 구조적으로 정방형 또는 종방형에 가까워 순흥지역과는 차이가 크다(그림 8).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벽화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신라 고분문화가 강하게 표출되는 순흥지역에서 만약 5세기 후엽 무렵부터 횡혈식석실이 축조되었다면 방형이나 횡장방형이 아닌 종장방형이나 세장방형 평면형태의 횡혈식석실로 확인되어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림 9> 경주 서악동 석침총 석실 및 출토유물(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사실 가야지역에서도 대가야 멸망 이전의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33) 세종문화재연구원, 2015,『慶州 茸長里 567-16番地 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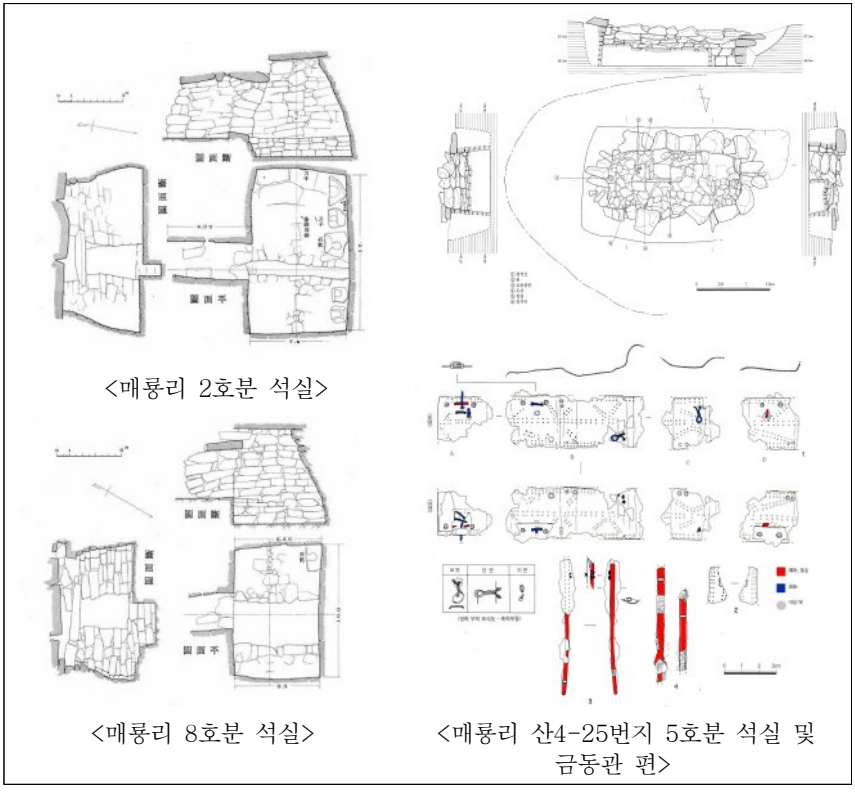
방형 평면형태의 신라 횡혈식석실이 일부 출현하고 있으나 고분 편년에 따라 횡장방형 평면형태는 대가야 멸망 이후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신라·가야권역에서 횡장방형 평면형태의 출현은 6세기 후엽으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다.[34] 아마 경주지역 횡장방형 횡혈식석실 중 이른 시기로 평가되는 서악동 석침총의 연대가 출토유물에 의해 6세기 후엽에 위치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35]

한편,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및 영역 확장과 관련하여 남한강 중류권역에 위치한 여주 매룡리 고분군이 주목되는데, 여기서도 순흥지역 벽화고분과 같이 횡장방형 횡혈식석실이 확인되었다(그림 10). 일제강점기 때 조사된 매룡리 2호분과 8호분은 중앙연도식의 횡장방형 평면형태로 축조되었는데, 시상대에서 석침이 사용된 점을 근거로 경주 서악동 석침총과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피장자는 경주와 직접 관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36]

여주 매룡리 고분군에서는 지금까지 다수의 신라양식토기와 함께 태환이식, 대장식구 등의 신라 위세품이 출토되었고, 지금까지 조사된 매룡리 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매룡리 산4-25번지 유적의 5호 횡구식석실에서는 금동관 편까지 출토되어 매룡리 고분군의 출현배경에 신라 중앙이 깊이 관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금동관의 형태는 소위 퇴화 형식의 수지형 대관에 해당하여 6세기 중엽 전후로 편년되며, 단양 하리, 대구 가천동, 동해 추암동, 파주 성동리 등에서 확인된다.[37] 이에 매룡리 고분군은 6세기 중엽 이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및 영역 확장과 관련하여 거점지역에 대한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고, 태환이식의 부장과 함께 석침까지 마련된 6세기 후엽 이후의 전형적인 신라 횡혈식석실을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비교적

34) 김준식, 앞의 논문(2019), 80쪽.
35) 황종현, 앞의 논문(2020), 143쪽.
36) 洪潛植, 「考古資料로 본 新羅의 漢江流域 支配 方式」, 『百濟硏究』 5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9, 137쪽.
37) 황종현, 앞의 논문(2020), 239쪽.

높은 위계의 인물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매룡리 2호분 석실>

<매룡리 8호분 석실>

<매룡리 산4-25번지 5호분 석실 및 금동관 편>

<그림 10> 여주 매룡리 고분군 석실 및 출토유물
(朝鮮總督府 1935; 畿甸文化財硏究院 2000)

결과적으로 벽화고분을 포함한 순흥지역 횡혈식석실은 대체로 6세기 후엽부터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경주 주변지역의 사례로 보아 방형 평면형태의 경우에는 빠르면 6세기 중엽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권역인 영남지방에서 5세기 후엽의 횡장방형 횡혈식석실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상과 같이 순흥지역 횡혈식석실의 축조연대를 넓게 보아도 6세기 중엽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렵다면, 순흥 어숙묘와 순흥 벽화고분의 연대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고분의 출현을 6세기 후엽 이후로 판단하면 우선 순흥 어숙묘에 기록된 乙卯는 595년일 것인데, 일단 평면형태가 방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르게 보면 6세기 중엽의 이른 시기인 535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6세기 후엽의 특징인 판석으로 된 고시상대와 문비석을 분명히 사용한 것을 근거로 595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순흥 벽화고분에 기록된 己未는 539년 내지 599년일 것이나 역시 횡장방형 평면형태를 비롯하여 문비석의 존재를 고려하면 확실히 599년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 명문의 간지를 '己未'가 아닌 '己亥'로 보기도 하는데,[38] 이 경우에도 역시 己亥의 연대를 519년이 아닌 579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벽화 제재의 종류나 회화 양식에 근거하여 순흥 벽화고분과 어숙묘 모두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차례로 그려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순흥지역에서 벽화고분이 6세기 후엽에 축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39]

2. 벽화고분의 위계

신라 횡혈식석실의 위계와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현실의 평면형태는 종・횡장방형→방형, 현실의 평면규모는 소형(4㎡ 미만)→중형(4~6㎡)→대형(6㎡ 이상), 연도위치는 좌・우편재→중앙 순서로 위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40]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현문시설과 시상

38) 김재홍, 「함안 성산산성과 출토 목간의 연대」, 『木簡과 文子』 22, 한국목간학회, 2019, 25~26쪽.

39) 전호태, 앞의 논문(2020), 87~88쪽.

40) 박진혜, 「경주지역 횡혈식석실묘 연구」, 『고고광장』 15, 부산고고학회, 2014; 이혜정, 「경주지역 횡혈식 석실의 등장과 전개」, 『영남고고학』 67, 영남고고학회, 2013;

구조, 그리고 출토유물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현실의 평면 형태와 규모, 연도위치를 근거로 위계의 큰 틀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연구자들은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4~5등급으로 위계를 구분하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여 4단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신라 횡혈식석실 등급 분류

등급	평면형태	평면규모	연도위치	대표 고분(경주)
1	방형, 횡장방형	초대형~대형	중앙	서악동, 노서동
2	방형, 종・횡장방형	대형~중형	중앙, 좌・우편재	충효동, 보문동, 용강동
3	방형, 종・횡장방형	중형~소형	중앙, 좌・우편재	황성동, 동천동, 방내리, 석장동, 구어리, 검단리
4	방형, 종・횡장방형	소형	좌・우편재	

아울러 횡혈식석실의 위계 및 피장자의 신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신라의 관등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순흥 어숙묘에서 신라 外位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라 관등제에서 京位와 구분되는 外位는 지방민에게 부여된 관등으로 대략 법흥왕 재위 기간에 제정되어 문무왕 재위 중에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41] 등급은 ①嶽干~⑦干/下干까지 干群外位와 ⑧一伐~⑪阿尺까지 非干群外位의 11등급으로 구분된다.[42] 外位의 각 등급을 京位와 비교하면 一吉飡 이하의 6두품부터 해당한다(표 6).

최병현, 앞의 논문(2012); 황종현, 앞의 논문(2020).

41) 이처럼 순흥 어숙묘에 표기된 述干에 의해 고분 축조연대의 대략적인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42) 하시모토 시게루, 「월성해자 신 출토 목간과 신라 外位」, 『木簡과 文字』 24, 한국목간학회, 2020, 231쪽.

<표 6> 신라의 관등제(山本孝文 2006, 수정 후 인용)

등급	京位	등급	外位	골품	비고
1	이벌찬(伊伐飡)/각간(角干)			진골	
2	이척찬(伊尺飡)/이찬(伊飡)				
3	잡찬(迊飡)/소판(蘇判)				
4	파진찬(波珍飡)/해간(海干)				
5	대아찬(大阿飡)				
6	아찬(阿飡)			6두품	
7	일길찬(一吉飡)	1	악간(嶽干)		
8	사찬(沙飡)	2	술간(述干)		순흥 어숙묘
9	급벌찬(級伐飡)/급찬(級飡)	3	고간(高干)		
10	대나마(大奈麻)	4	귀간(貴干)	5두품	
11	나마(奈麻)/내말(奈末)	5	선간(選干)		
12	대사(大舍)	6	상간(上干)	4두품	
13	사지(舍知)/소사(小舍)	7	간/하간(干/下干)		
14	길사(吉士)	8	일벌(一伐)		
15	대오(大烏)	9	일척(一尺)		
16	소오(小烏)	10	피일(彼日)		
17	조위(造位)	11	아척(阿尺)		

여기서 피장자의 관등이 확인된 순흥 어숙묘의 述干은 外位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京位 8등급의 沙飡에 대응하여 6두품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 관등으로서는 매우 높은 위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구조도 좌편재 연도의 방형 평면형태, 그리고 초대형 평면규모에 해당하여 2등급에 위치한 충효동, 보문동, 용강동의 횡혈식석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순흥지역에서는 등급과 피장자

의 신분이 확실한 어숙묘를 최고 높은 위계로 위치시킬 수 있고, 그 아래로 대형 평면규모까지 6두품, 그 미만의 평면규모는 5두품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표 7).[43]

<표 7> 영주 순흥지역 횡혈식석실 위계 추정

고분	연도/현실 평면형태	규모/면적(㎡)	석실 위계	골품 (추정)	비고
순흥 어숙묘	좌편재/방형	초대형/7.75	2등급	6두품	述干
순흥 벽화고분	좌편재/횡장방형	초대형/7.13	2등급	6두품	
내죽리고분군3 바느레고분	좌편재/방형	대형/6.63	2등급	6두품	
읍내리고분군1 3호분	우편재/방형	대형/6.44	2등급	6두품	
청구리고분군1 1호분	좌편재/횡장방형	중형/4.63	3등급	5두품	
청구리고분군1 5호분	우편재/횡장방형	중형/4.36	3등급	5두품	
읍내리고분군1 11호분	좌편재/방형	소형/3.85	3등급	5두품	
청구리고분군1 4호분	좌편재/횡장방형	소형/3.70	3등급	5두품	
청구리고분군1 2호분	좌편재/횡장방형	소형/3.68	3등급	5두품	

Ⅳ. 맺음말

본 연구는 순흥지역 벽화고분을 이해함에 역사고고학의 관점으로 더 선명하게 접근하기 위해 먼저 5~6세기 순흥지역 고분의 성격과 특징을 묘제의 변천에 따라 살펴보았고, 그 축조연대와 출현배경에 대해서도 살

43) 기왕의 연구에서도 소형 평면규모 중에서 3㎡ 이상의 위계는 5두품으로 보고 있다(최병현, 앞의 논문(2012), 97쪽).

펴보았다. 아직 고분군의 구체적인 성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당시 신라 중앙에서 주목한 순흥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기에는 충분하다.

순흥지역은 5세기 중~후엽 신라 고분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이때 수혈식석곽이 출현한다. 5세기 후엽 이후로는 대형 횡구식석실을 견고하게 축조할 수 있을 수준의 기술과 인력이 도입되고, 6세기 중엽까지 대규모 고분군까지 조성하는 등 고분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이때를 중심으로 신라 중앙과 관계된 위세품이 다량 부장되는 것에서 당시 순흥지역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6세기 중엽 이후로는 고분의 밀집도가 낮아져 고분군의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이나 이는 당시 한반도 남부지역의 전반적인 고분 축조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때 묘제는 횡혈식석실이 대표적이고, 6세기 중엽 이후 신라 횡혈식석실의 보편적인 구조 및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횡혈식석실이 유행한 6세기 이후의 고대 사회는 국가정비 및 지배체제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묘제의 위계화도 가능한 시기에 해당한다. 이에 순흥지역 횡혈식석실은 신라 고분 편년 및 6세기 중엽 이후 신라 횡혈식석실 위계에 따라 2등급과 3등급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위계가 가장 높은 등급인 어숙묘에서 述干이라는 신라 外位가 확인된 점으로 보아 2등급은 6두품, 3등급은 5두품의 위계를 가진 인물과 관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순흥지역에서 확인된 두 기의 벽화고분 역시 신라 횡혈식석실 체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신라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편년에 근거하여 모두 6세기 후엽에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순흥 어숙묘와 벽화고분 모두 당시 신라권역에 속하였지만 순흥지역에서 고구려 계통의 벽화가 그려진 것은 여전히 특수한 사례라 판단된다. 이러한 벽화의 출현배경은 신라 관등제에 포함된 고구려계 신라인 또는 그 후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가 접변하는 5~6세기 순흥지역을 포함한 죽령 일원의 고분문화 및 고대사의 복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4년 08월 1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8월 27일부터 0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홍보식, 『新羅 後期 古墳文化 硏究』, 춘추각, 2002.
山本孝文,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문화사, 200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고분 정밀측량 및 분포조사 연구보고서』,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분벽화』, 2019.
畿甸文化財硏究院, 『驪州 梅龍里 山4-25번지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2000.
大邱大學校博物館, 『順興邑內里壁畵古墳』, 1995.
동양대학교박물관, 『영주시 관내 선사~고려시대 고분군 정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9.
동양대학교박물관, 『영주 용산리 산41 유적』, 2018.
서라벌문화재연구원・영주시, 『영주 순흥 벽화 고분 종합정비계획』, 2023.
세종문화재연구원, 『榮州 順興 台庄里古墳群 3』, 2013.
세종문화재연구원, 『慶州 茸長里 567-16番地 遺蹟』, 2015.
세종문화재연구원, 『榮州 邑內里古墳群 1』, 2017.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榮州順興壁畵古墳發掘調査報告』, 1984.
홍익문화재연구원,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주변 정밀지표조사 및 학술연구 보고서』, 2018.
朝鮮總督府,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第二冊, 1935.

姜賢淑, 「高句麗 壁畵墳과 新羅 榮州地域 壁畵墳 比較 考察」, 『白山學報』 67, 白山學會, 2000, 225~255쪽.
김도헌, 「영주 순흥지역 고분의 성격과 특징」, 『영주 순흥지역 고분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 영주 순흥지역 고분 국제학술대회, 영주시・세종문화재연구원, 2012.
김도헌, 「영주지역 삼국시대 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영주 순흥 벽화고분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 2021 영주 순흥 벽화 고분 학술회의, 2021.

김재홍, 「함안 성산산성과 출토 목간의 연대」, 『木簡과 文字』 22, 한국목간학회, 2019, 15~33쪽.
金俊植, 『加耶 橫穴式石室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준식, 「영주 순흥지역 고분 문화의 성격과 특징」, 『영주 순흥 벽화고분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 2021 영주 순흥 벽화 고분 학술회의, 2021.
김준식・이진혁, 「순흥지역 횡구식석실과 그 축조 집단의 성격」, 『야외고고학』19,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4, 85~124쪽.
남익희, 「순흥지역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묘의 전개와 정치체 동향」, 『嶺南考古學』 65, 영남고고학회, 2013, 92~117쪽.
南翼熙, 『新羅土器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박진혜, 「경주지역 횡혈식석실묘 연구」, 『고고광장』 15, 부산고고학회, 2014, 71~105쪽.
李盛周, 「技術, 埋葬儀禮, 그리고 土器樣式-尙州地域 洛東江以東 土器樣式의 成立에 대한 理解-」, 『한국고고학보』 52, 한국고고학회, 2004, 95~136쪽.
李在煥, 「洛東江 上流地域 橫口式石室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李辰赫, 「5~6세기 소백산맥 동북부 일대 신라고분 연구(횡구・횡혈식묘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이태호, 「고구려의 고분인가? 신라의 고분인가?」, 『남한의 고분벽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이혜정, 「경주지역 횡혈식 석실의 등장과 전개」, 『영남고고학』 67, 영남고고학회, 2013, 90~117쪽.
전호태, 「영주 신라 벽화고분 연구」, 『先史와 古代』 64, 한국고대학회, 2020, 67~90쪽.
전호태, 「영주 순흥 신라 벽화고분의 가치와 의의」, 『한국문화연구』 4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7~38쪽.
최병현, 「경주지역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계층성과 고분 구조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83, 한국고고학회, 2012, 80~129쪽.
崔鍾澤, 「南韓地域 高句麗古墳의 構造特徵과 歷史的 意味」, 『한국고고학보』 81, 한국고고학회, 2011, 139~176쪽.

황종현, 『신라 횡혈식석실묘의 수용과 전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洪潛植, 「考古資料로 본 新羅의 漢江流域 支配 方式」, 『百濟硏究』 5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9, 113~142쪽.
韓眞賢, 「黃海道·南韓地域 高句麗 石室墓 硏究」,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山本孝文, 「伽倻地域 橫穴式石室의 出現背景 -墓制 變化의 諸側面에 대한 豫備考察」, 『百濟硏究』 3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1, 39~73쪽.
하시모토 시게루, 「월성해자 신 출토 목간과 신라 外位」, 『木簡과 文子』 24, 한국목간학회, 2020, 227~250쪽.

Abstract

Characteristics of Silla mural tombs in Sunheung region seen from stone chamber tombs with horizontal entrance

Kim, Jun-sik

The Sunheung area of Yeongju began to be influenced by the Silla tomb culture in the mid to late 5th century, and stone lined tombs were built at this time. From the late 5th century onwards, the technology and manpower required to firmly construct large-scale stone chamber tombs were introduced. In the early 6th century, the tomb culture reached its heyday, with a large group of tombs being built. And the status of the Sunheung region at that time can be seen in the fact that a large number of prestige goods related to the central part of Silla were buried around this time. Since the mid-6th century, the density of tombs has decreased and the size of the tomb group has been decreasing. However, this appears to be a result that reflected the overall trend of tomb construction in the south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time. At this time, the typical tomb ritual is a stone chamber tombs with horizontal entrance. And the structure can also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Silla's tomb culture and system.

In the ancient society of the 6th century, when stone chamber tombs with horizontal entrance were popular, the state organization and governance system were established, so it was possible to use this to rank tomb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stone chambers tombs with horizontal entrance in the Sunheung region were built in grades 2 and 3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stone chambers tombs with

horizontal entrance in Silla. Based on this, the status and hierarchy of the buried were estimated based on the Tombs of Eo-suk in Sunheung with the highest level of stone chamber.

The two mural tombs identified in the Sunheung area also need to be understood within the system of stone chambers tombs with horizontal entrance in Silla. Based on the structure and chronology of the stone chambers tombs with horizontal entrance in Silla at the time, they were all considered to have been built in the late 6th centur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clearer historical archaeological approach to the construction period and hierarchy of the mural tombs in the Sunheung region.

keywords :
Sunheung region, mural tombs, Silla, stone chamber tombs with horizontal entrance, ancient tombs, rank